

# '좌우' 타협 속에 '조선출협' 출범

## '출협' 탄생 전후의 출판계 (1945~1948) ②

### 가판'에서 서점판매로

해방되고 46년 9월까지의 시기를 '정치사상 팜플렛 시절'이었다고 규정한 최영해는 "해방 직후에는 각처에서 서적을 출판하여 서점에 갖다줄 여가도 없고, 또 마땅한 서점도 없는 형편이어서 가두(街頭)에서 책을 판매했다"고 회고했다.

지방에서의 얘기지만, 해방 직후에 대구역 전에서 가두판매로 시작해 훗날의 '계몽사'를 일궈낸 김원대(金源大)회장의 체험담은 저간의 사정을 실감나게 전해준다.

"... 이왕 판을 벌인 김에 신문 옆에다 우리말로 나온 출판물을 놓고 팔았는데, 이것이 또 신문 이상 나가는 인기품목이었다. 당시의 출판물이라고 해봤자 팜플렛 형태의 필사본 등사물이거나, 제국주의 일본의 꺾박으로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구한글 활자를 끄집어내어 조악하게 인쇄한 1백쪽 내외의 허름한 책자였다. 그런데도 한글로 씌어진 책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내용은 어쨌거나 죽은 자식이 되살아난 소식이라도 있는듯 '감격적'으로 팔렸다.

가장 잘 팔린 것이 한글학자 최현배씨가 지은 《한글맞춤법 통일안》이란 책자였다. 이 책자 역시 출판사에서 조판된 것이 아니라, 김회장 자신이 수소문해서 구한 원고를 직접 등사하여 1백쪽이 채 안되게 만든 보잘 것없는 프린트물이었다." (《계몽사 40년》, 1988, 28쪽)

출판계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것과 함께 서점도 늘어나면서 삼중당(서재수)·일성당서점(황중수)·청구서림(박상완)·유길서점(신재영) 등 대형 도매상 외에 몇몇 군소 서적도매상들이 출판계와 일선 서점과의 교량 구실을 하게 된다. 그러나 도매상의 이합집산과 부실운영으로 출판사는 책대금 회수가 어려워져 경영난에 허덕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 기선 잡은 '좌익출판협의회'

혼란과 시행착오가 되풀이되는 가운데서도 출판계는 1947년에 들어서면서 차츰 "무질서에서 조직으로, 부동(浮動)에서 안정으로" (김창집, 앞의 글) 자리를 잡아간다. 앞서 보았듯이 출판업계의 조직화 움직임이 처음 싹튼 것은 해방되고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1945년 12월이었지만, '출판문협' 결성을 위한 '기성회'만 출범시킨 채 무슨 까닭에선지 1946년이 거의 다 가도록 이렇다할 구체적인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출판계 좌우 인사들 사이의 이념적 갈등이나 시국관의 차이라는 내부적 요인과 아울러, 신탁통치 찬반투쟁 및 대구지방 소요사건으로 상징되는 정치·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출판계가 이렇게 머무적거리는 사이에도 여타 문화계의 분야별 단체 결성은 속속 꼬리를 이었다. 출판계의 '기성회' 결성 사흘 뒤인 45년 12월 13일 좌파 문학인들의 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이 발족한 것을 필두로 46년 2월 23일 조선미술가동맹, 3월 13일 전조선문필가협회 등이 잇달아 결성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46년 겨울께 불쑥 튀어나온 것이 좌익계열 출판인들의 모임인 '조선좌익서적출판협의회' (약칭 '좌협')였다. '좌협'은 당시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좌익 출판물의 질서잡기를 목적으로, 조벽암(趙碧岩)·이원조(李源朝)·권혁창(權赫彰)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좌협'은 사무실을 종로구 안국동 155번지에 두고 온락중(溫樂中)이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그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알려진 바 없다.

'좌협' 발족에 자극을 받았음일까, 47년에 접어들면서 범출판업계의 협회결성을 위한 행보가 빨라졌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범출판업계를 망라한 '조선출판문화협회'의 창립총회가 2월과 3월 두차례 열렸다는 것과, 이 협회 창립에 '좌협' 측도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 회칙 내용 싸고 의견 대립

첫번째 창립총회는 47년 2월 25일, 종로 2가에 자리잡은 영브그릴에서 열렸다. 당시 《동아일보》는 2월 20일자 '조선출판협회 창립'이란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예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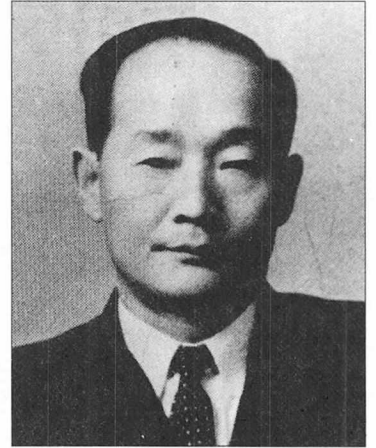
"조선출판문화의 정신적 발전을 위하여 현재 서울시내 출판업자 중 고려문화사·건국사·국제문화협회·박문출판사·서울신

1947년 3월 15일, 드디어 좌·우익을 망라한 범출판업계의 단체인 '조선출협'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다. 그러나 좌익계열은 개인차원의 참여였을 뿐이며, '조선출협'과 '좌익출판협의회'는 큰 마찰없이 당분간 더 공존하게 된다.

문사출판부·서울타임스출판부·창인사·문우인서관·정음사·대성출판사·좌협 이상 12개 출판사가 발기하여 '조선출판협회'를 창립하기로 하고 준비중이던 바, 드디어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시내 종로 영브그릴에서 그 결성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다." (당시 발기인 12개 출판사 중에는 을유문화사도 끼여 있었으나 기사에는 누락되었다.)

그러나 이날의 총회는 '출협' 창립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모두 104명의 출판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는 임시의장으로 '좌협' 측의 조벽암(건설출판사)을 선출하고 경과보고(김형찬·건국사)와 발기취지 설명(성인기·대성출판사)에 이어 회원자격을 '일간신문 이외의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 출판업자'로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데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회칙 심의에서 '건국에 방해되는 출판물'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는 문제를 둘러싸고 좌파와 우익간신한 끝에 수정 회칙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그에 따라 고려문화사·정음사·을유문화사·대성문화사·건설출판사·노동사·해방출판사·적성(赤星)출판사 등 15개 출판사 대표가 신회칙기초위원으로 선출됐다. 기초위원회에 '좌협' 측으로 보이는 출판인이 여러명 포함된 것이 주목되는데, 이들은 여러차례의 공식회의와 물밑 접촉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다.

드디어 47년 3월 15일, '출협' 창립의 역사적인 막이 오른다. 이날 총회가 두번째 창립 총회였음은 이를 보도한 신문이 '조선출판협회 창립총회 속회(續會)' (《동아일보》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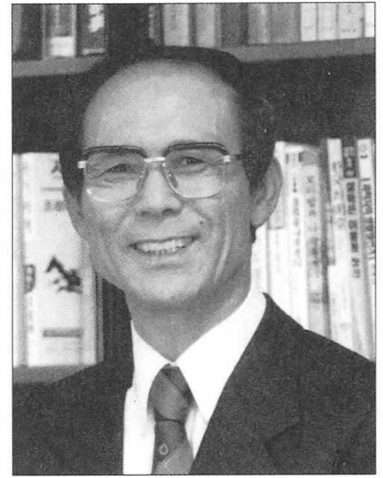
위부터  
초대 회장 김창집씨,  
초대 부회장 최영해씨,  
47년 12월 제2대 사무국장이 된 강주진씨.

3. 1)라고 한데서도 확인된다. 어쨌든 이날 123명의 가입회원 중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벽암 임시의장의 사회로 열린 창립총회는 전문 7장 31조로 된 회칙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전행위원 20명의 투표로 위원장에 고려문화사의 김창집, 부위원장에 정음사

# 신명나게 어울리는 책잔치 한마당이 되길

나춘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나춘호 회장.

상을 높이는 일, 세계로 향한 출판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성원을 이끌어내는 일, 그리고 책을 가까이하는 일이 즐겁고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 독서를 생활화하게끔 '기초와 책방 가는 날' 등의 운동을 전개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출협 50돌을 독자, 아니 온 국민과 함께하는 책의 축제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기념으로 '출협 50년사'도 펴내고 학자나 전문가들의 세미나도 열어야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고, 작가와 만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남달리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상도 주며 덩실덩실 신명나게 한바탕 어울리는 책사랑 문화마당을 열었으면 싶다. 우리의 책을 퍼드는 힘으로 오늘 한국의 질곡에서 벗어나 미래로, 세계로 즐기게 뻗어나갔으면 싶은 것이다.

근대 한국의 선각자이자 교육자인 도산 안창호님은 출판인이기도 하였다. 그는 일찍이 책의 중요성을 갈파하고 스스로 '태극서관'이란 출판사를 차려 책으로 국민들의 정신을 일깨우려 하신 분이였다. 그가 남긴 어록 중에 "책방은 학교다. 책은 교사다. 책방은 더 무서운 학교요, 책은 더 무서운 스승이다"는 말이 있다.

이 잠언이야말로 출협 50돌을 맞는 우리 출판인은 물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책을 더욱 가까이하라는 따듯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

의 최영해와 조벽암을 선출했다.

## 위원장단에 김창집·최영해·조벽암 선출

이렇게 해서 좌·우익을 망라한 범출판업계의 단체인 '조선출판문화협회'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는데, 특히 회칙 제4조 ④항 "출판의 자유를 병자하여 사리(私利)만을 도모하며 비민주적 출판을 행하는 업자에 대하여 경고를 발함"이란 규정은 좌우 양쪽의 고심어린 타협의 산물로 보인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1, 2차 창립총회에서 임시의장으로 활약하고 협회의 초대 부위원장이 된 조벽암이란 인물에 대해서다. 그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본명은 조중흡(趙重洽)이며, 필명 '벽암'은 그의 출생지인 '벽암리'에서 따왔다. 경성 제2고보(지금 경북고)와 경성제대 법학부를 나온 인텔리인 그는 동반자작가로 1930년대 중반께부터 시와 소설을 발표하면서 한때 '구인회(九人會)'에도 관계하는 한편 화신산업전무·동산직물 사장 등을 지냈으며, 해방 후에는 조선문화가동맹 서울시지부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그가 해방 직후 종로구 무교동에 건설출판사를 차린 것도 왕년에 실업계에서 쌓은 기업경영 경험과 재정적 기반이 밑받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건설출판사에서는 조선문화가동맹 시부(詩部)의 합동시집인 《3·1기념시집》(1946)을 비롯, 임화(林和)·권환(權煥) 등의 시집과 숙부인 소설가 조명희(趙明熙)의 창작집 《낙동강》(재간) 등 주로 문화가동맹 회원들의 작품을 많이 출판했다.

## 조벽암, 7개월만에 부위원장 사퇴

'좌협' 측에서도 '조선출협'에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좌협' 회원사들 개인차원의 참여였을 뿐 '좌협' 자체가 해체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출협 창립 9개월 뒤인 47년 12월 제2대 사무국장직을 맡았던 강주진(당시는 姜尙雲) 전국회 도서관장은 당시 '좌협'과 '조선출협' 사이에 어떤 알력 같은 것은 없었다면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기고 있다.

"그때 '좌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좌익과는 좀 성격이 달랐죠. 진짜 공산주의자

라기보다 그저 대중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을 가진 지식층의 상당수가 좌익에 가까웠습니다. 가령 여운형(呂運亨)씨 같은 분도 그렇죠. 출판인들 가운데도 이런 성향의 사람이 많을 수밖에요. 그러니 좌익측에서 최영해씨에게 호감을 갖는다든가 해서 비교적 관계가 원만했다고 봐야죠. 물론 좌우대립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개인들도 각자 노선을 분명히 해야 했지만, 그 당시엔 모든 것이 공존하던 때였어요." 《출판저널》 제49호, 앞의 기사)

인용이 길어졌지만, '좌협' 회원으로 '조선출협'에 참여한 인사들은 비교적 온건한 합리주의자에 속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중에도 특히 조벽암(당시 40대 초반으로 추정)이 처음부터 '조선출협' 결성을 위한 '기성회'에 참여하는가 하면 두차례의 창립총회에서 '신허칙기초위원'과 '임시의장'으로 뽑히고, 나아가 협회의 창립 부위원장에까지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좌협' 측에 대한 정치적 배려에서라기보다는 조벽암 자신이 지닌 특출한 학·경력에다 인품, 곧 '사람됨됨이'가 출판인들의 중망(衆望)을 모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어쨌든 김창집 위원장이 1년 임기의 회장직을 1~10대까지(1947~57) 연임하고 최영해 부위원장 역시 1~8대까지(1947~55) 연임한데 반해, 조벽암 부위원장은 취임 7개월만인 47년 10월 스스로 사퇴하고 만다. 그리고 초대 사무국장이던 김호선(金鎬善)도 물러나는데, 김호선은 "김창집 위원장과 별로 친한 편도 아니었고 좌익에 줄이 닿았던 사람"(강주진 회고담)이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한다.

조벽암 부위원장이 사퇴하게 된 지간의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그는 이 해에 자작시집 《대열》을 발간하려다 군정당국에 의해 발매금지를 당한 일이 있다고 한다. 아마도 이런 아픔과 출협 내부에서의 불협화가 그로 하여금 부위원장직을 사퇴케 하고 끝내는 북으로 가버리게까지 만든 것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계속> — 이승우 주간

올해로 출협이 창립된 지 꼭 반세기가 되었다. 세대에 따르면 겨우 50살 나이를 먹은 젊은 출협이 기념식을 준비하고, 갖가지 행사를 벌이는 등의 생일잔치를 한다는 것이 세인들의 눈에는 별스러운 일로 비춰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구나 그간 출협이 걸어온 50년의 발자취와 현재의 위치를 알게 되면, 단지 50이라는 아구맞은 숫자를 빌미로 부산을 떠는 것이 아님을 확연하게 느끼게 되리라.

출협 50년사에서 기억할 만한 일들은 슬하에 많을 것이나 그 중에서도 출판인들이 자긍심을 갖는 일을 세가지만 든다면, 첫째는 8.15 해방 직후의 좌우 대립과 정부 수립과정의 극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출협을 결성해 책을 통한 국민계몽운동의 뜻을 올렸다는 것이다.

둘째는 6.25 전쟁과 자원 절대부족의 70년대 이전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책을 중단없이 펴내 문맹퇴치는 물론 국민의 교양신장과 정서함양에 기여했다는 점이고, 셋째로는 어쨌든 우리의 출판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들 만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이미 과거에 이룬 자긍심일 뿐이다. 그러므로 출협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새로운 자긍심을 일구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빛어가야 할 미래의 자긍심의 상은 자명하다. 그것은 출판시장 개방의 파고에 좌초하지 않고 세계시장을 향해 항진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 출판계가 지금 겪고 있는 불황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갈수록 선진국의 문화에 종속되어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지키고 더욱 키워나가는 길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출협 창립 50주년을 맞아 펼치고자 하는 여러 일들은 우리 출판인들끼리 자화자찬의 잔치가 아니라, 새로운 자긍심을 만드는 역사(役事)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출협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계획되었고 추진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출판계가 이룬 그간의 성과와 역할의 중요성을 알려 출판인의 위